

## 김요인 작업노트

지난 9년 간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와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화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한국사회의 가시적인 발전과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결여 상태는 전 작업에서 '개인의 부재' 또는 '감성의 배제' 등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형태와 표면적 특성을 대립시키는 방식 (대표적으로는 '에코락\_2017', '분수\_2017년작', '행복의 미장센\_2015', '삶의 수준\_2015')의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귀국 후 내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의 상황은 보다 더 심각했는데, 이토록 그럴듯한 무대에는 이제 믿을 만한 형상이라는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단발적인 스트레스 해소로 방치되는 불안과 두려움, 폭력적인 시선과 무너진 자존감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히스테리증. 사람들은 스스로가 혹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밖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있어 불가항력적으로 개입되는 매스미디어들이 주체적인 육체와 정신의 활동을 침해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도시와 도시의 재료가 되는 시장을, 공원과 공원의 영감인 자연을 산책했다. 디딤돌을 모방한 보도블록을 걷다 보면 그것은 1미터 제곱의 거푸집에 시멘트를 부운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엉뚱하게 배치된 조경 바위 중에는 필히 스티로폼 등으로 제작되어 속이 비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 의심해보았다. 인조잔디가 부분적으로 심어진 잔디망은 천연잔디와 혼연일체가 되어 사계절 푸르르고, 그것마저 성가시면 더 싱그러운 잔디가 인쇄된 타일도 있다. 무명의 사람들이 재현한 무명의 자연, 시작도 끝도 흐릿한 이미지는 반복되어 무늬가 되고, 이런 낯선 생기의 증식에서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했다.

내가보는 것이 나를 눈멀게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귀를 먹게하고, 내가 아는 것이 나를 가장 무지하게 만든다. (폴 발레리, 테스트씨)

2016년과 2017년 초반의 작업에서 보였던 방식, 자연을 모방한 혹은 재현한, 허구적이고 관념적 재료에 스텐다드한 형태를 매칭하여 개인의 역할에 대해 냉소하게 질문하는 대신, 지난 11월 개인전 '각자가 그 진실은'에서는 내 스스로의 감정, 감각, 기억에 집중하여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재료를 선택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조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인 상황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는 불편한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오해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해오면서 스스로에게 요구되었던 적당한 "거리 유지"가 마치 인간적 가능성을 포기하고 사회유기체의 증여물이 된 현대인처럼 예술도 기능하기 위한, 쉽게 설명되려는 목적의 사용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는 인식에서였다. 같은 문맥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변화는, 내가 애정했던 재료들, 수영장 물을 재현한 장판, 잔디가 인쇄된 타일, 대리석 재질의 시트지 등을 사용하는데, 그동안 내가 재현하고자 했던 시각적인 완성도가 재료의 성격과 지나치게 일치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낯선' 재료에 이끌림의 원인을 집착적으로 끌어왔으며 각 재료의 역할에 대해 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성질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나의 한평짜리 소원’ 에서 자갈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부조한 자갈 타일을 발견하고 그 안에 묘사된 자갈과 닮은 실제 자갈을 찾아 매치했는데, 이미 돌의 거친표면이 깎여나가 건축적 활용이 수월해진 둥그스레한 조약돌과 그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유년기 시절 강요받았던 위인전의 인간상을 떠올렸으며 그 닮음의 비극을 무너진 책상의 형태로 완성시켰으며, ‘기억밀도’ 에서는 정원을 산책하다 발견한 낫익은 숫자로부터 어떤 인물의 옷의 자수를 기억해내고 동체보다 비 동체가, 내용보다는 표면이 또 표면보다 특징, 더 나아가 기호화되는 상태를 소멸되기 전에 포장지로 묶어두어 보관하고자하는 행위로 표현하였다.

설치작업 ‘각자가 그 진실은’ 에서는 고정된 이미지로부터 최대한의 가능성을 끌어내고자 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건축용 돌이 마치 약한 물건이라도 되는양 랩으로 쌓여서 공사현장에 있는 모습에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각자가 그 진실은’ 구성하는 13개의 오브제들은 다양한 돌의 형태를 바탕으로 스티로폼과 석고로 제작되었는데 그 유일무이함을 강조하기위해 높이와 크기를 달리하는 좌대에 배치하였으며 돌의 이동을 상징하기위해 바퀴를 부착하고 그 동선을 한정하고자 바닥에 도로 노면 표식을 하였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어떤 행위로 옮겨감 없이 그저 있다는 것, 모든 가능성을 품는 ‘있음’의 과도적 상태를 재현하고자 했다.

‘글그리기’ 는 내면 활동을 위한 출판 작업이다. 컴퓨터 화면 캡처를 흑백으로 인쇄하여 복사한 이 인쇄물은 가장 시각적인 시 형태의 글을 다수의 이미지와 함께 노출시켜 글 고유의 전달력을 최소화하고, 글의 고정적인 형태가 응용프로그램 텍스트 편집기 안으로 제한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된다. 또한 사적인 공간 (폴더와 사진, 인터넷 주소창, 듣는 음악)을 공유 혹은 절묘하게 가림으로 보여지고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많은 물질과 함께 해온 성장, 이 사회 안에서 적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대체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란 듯 화려하고 공허하게 세운 도시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의 존재와 대립되고 사람 앞에 선행하는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물건과 다를 바 없이 묘사되는 내 작업의 인간상은 그 사용의 적절치 못함에서 절묘한 순간을 찾아내고자 한다. 자연물과 인공물이 혼잡스럽게 섞여버린 이 장소에서, 우연히 생긴 구멍 혹은 끊김과 같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시간과 시간사이에서 흐르는 절묘한 순간을 말이다. 때로는 표피에, 온도에, 무게에 비유되는 이 순간 속에 있음. 어쩌면 불편한 있음, 제한되고 소진되는 삶의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풍부한 감정과 감성이 방향 하는 대로 자연과 교감하고 사물과 소통하는 인간적 사용을 도모한다.

김요인

yeojin-kim.com  
www.instagram.com/yeoinkim  
duwls87@gmail.com